이규원 金 메쳤다

러 선수에 업어치기 한판승

세계유도 남자 90㎏급 우승

한국 중량급 유도의 새 얼굴 이규원(20·용인대·사진)이 처음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이변을 연출했다.

이규원은 29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 아호이체육관에서 열린 제26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나흘째 남자부 90㎏급 결승에서 러시아의 키릴 데니소브를 업어치기 한판으로 꺾고 우승했다.

이규원은 1회전(64강)에서 2008 베이징 올림픽 81㎏급 동메달리스트인 티아고 카밀로(브라질)를 만나 업어치기 한판으로 이기면서 이변을 예고했다.

2회전 베네수엘라 선수를 업어치기 절반과 지도 3개로 꺾은 이규원은 3회전에서도 사무엘 마키(핀란드)를 맞아 업어치기 한 판으로 화끈하게 제압했다.

4회전(8강)에서 스페인 선수에게 안뒤축걸기 유효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올라서는 세계 11위 메스바흐(이집트)도 3분50초 만에 업어치기 한판으로 꺾었다. /연합뉴스

차두리 시즌 첫 골…팀 1-0 승리

프라이부르크 이적 후 4게임 연속 풀타임 활약

'리틀 차붐' 차두리(29·프라이부르크)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2000-2010 시즌 첫 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차두리는 30일(한국시간) 새벽 독일 켈젠키르헨의 벨틴스 아레나에서 열린 샬케04와 정규리그 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반 40분 선제 결승골을 뽑아 1-0 승리에 앞장섰다.

2부리그 우승과 함께 1부리그 분데스리가로 승격한 프라이부르크로 지난 6월 이적한 차두리의 올 시즌 첫 골.

차두리는 지난 2008-2009시즌에는 2부리그의 TuS 코블렌츠에서 오른쪽 수비수와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33경기에 출장, 2골 2도움을 올렸다.

이날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해 지난 10일 함부르크와 개막전부터 네경기 연속 풀타임을 뛴 차두리의 활약이 빛났다.

애초 9월5일 열릴 호주와 평가전을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에 발탁될 예정이었지만 '차두리 없이 팀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프라이부르크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한국행을 포기한 차두리는 탄탄한 수비를 펼치는 한편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해 기분 좋은 결승골을 사냥했다.

차두리는 활발한 오버래핑으로 상대 문전을 위협했고 전반 40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강한 오른발 슈팅을 날려 반대편 골문을 꿰뚫었다.

프라이부르크는 샬케04의 반격에도 실점하지 않고 1점차 승리를 지켜 마수걸이 승리를 낚았고 차두리의 시즌 첫 골이 결승 득점이 됐다. /연합뉴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왼쪽)이 30일(한국시간) 맨체스터 올드트래퍼에서 열린 아스널과 홈경기에서 아스널의 바카리 사그너와 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교체 투입 32분 활약

맨유, 라이벌 아스널에 2-1 역전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에서 뛰는 박지성(28)이 2009-2010시즌 4라운드 아스널과 빅매치에서 교체 선수로 출전해 활발한 움직임으로 알렉스 퍼거슨 감독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박지성은 30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아스널과 홈경기 선발 명단에 빠졌지만 후반 18분에 안토니오 발렌시아와 교체돼 그라운드에 나서 후반 추가시간까지 32분여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다. 지난 23일 열린 위건과 원정 경기에 결장했던 박지성은 활발한 몸놀림을 선보이며 공격과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나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올 시즌 첫 '빅4' 맞대결에서 선제골은 아스널의 몫이었다.

아스널은 전반 39분 아르샤빈이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오른발로 대포알 같은 슈팅을 날려 1-0으로 앞서 나갔다. 강하게 찬 공은 골키퍼 벤 포스터 손을 맞고 그대로 왼쪽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하지만 맨유가 거센 반격으로 승부의 물꼬를 돌렸다. 맨유는 후반 14분 루니가 상대 문전으로 쇄도하다 아스널 골키퍼인 마누엘 알무니아의 손에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루니가 자신이 얻은 페널티킥을 직접 차넣어 시즌 4호골을 기록하며 1-1 동점을 만들었다.

역전골은 박지성이 교체 투입되자마자 나왔다. 루이스 나니와 발렌시아가 좌우 날개로 선발 출격하면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박지성은 후반 18분 발렌시아를 대신해 투입됐다.

한편 7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이청용(21·볼턴 원더러스)은 이날 리버풀과 홈 경기 교체 선수 명단에 들었으나 끝내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연합뉴스

남자 배구 日에 완패

23년만에 세계대회 진출 무산

한국 남자 배구대표팀이 2010 세계배구선수권대회 아시아예선에서 일본에 져 내년 세계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됐다.

김호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30일 일본 고마키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아시아예선 H조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에 0-3(23-25 16-25 22-25)으로 완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예선에서 1승2패(승점 4점)로 H조 3위에 그치면서 상위 두 팀에게만 주는 내년 이탈리아 세계배구선수권대회 출전권을 얻지 못했다.

남자 대표팀이 세계대회 본선 진출에 실패하기는 1986년 체코대회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H조에서는 일본(3승·승점 6점)과 이란(2승1패·승점 5점)이 세계대회 본선에 나가게 됐다.

이날 패배로 한국은 2006년 아시아최강전에서 일본에 승리한 이후 4연패를 당했다. 일본과 통산 전적에서는 60승43패로 앞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중 부상 김남일 오늘 입국

오랜만에 축구대표팀에 뽑힌 '진공청소기' 김남일(32·빗셀 고베)이 경기 도중 코를 다치면서 예정보다 하루 늦은 31일 오후 귀국한다.

대한축구협회는 30일 "김남일이 전날 치러진 일본 프로축구 J-리그 우라와 레즈와 경기에서 상대 선수와 부딪히면서 코를 다쳤다고 알려왔다"라며 "부상이 심하지는 않지만 병원 진료가 필요해 입국을 연기했다"라고 밝혔다.

김남일은 29일 우라와 레즈와 홈 경기에 선발 출전했지만 후반 12분 코를 다치면서 교체됐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김남일이 31일 오전에 병원 진료를 받고 오후에 귀국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라며 "선수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라도 뛰겠다는 각오를 보일 정도로 대표팀 합류에 대한 의욕이 강하다. 일단 귀국하고 나서 코칭스태프와 면담을 통해 대표팀 합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스포츠 중계

31일(월)

▲추계전국대학 핸드볼대회 〈강원대 : 충남대〉(13 : 50·SBS스포츠)

▲전국휠체어 농구대회 결승전 (14 : 10·KB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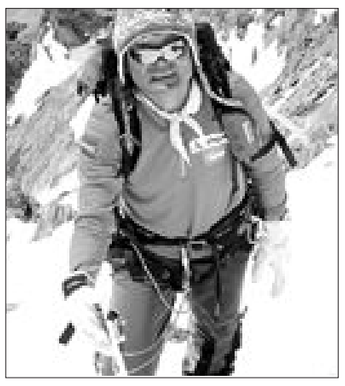
▲중등축구연맹회장배 국제축구대회 (14 : 15·MBC)

▲대교눈높이 2009 WK리그 〈서울시청 : 대교〉(18 : 50·KBSN SPORTS)

'열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씨

"이번엔 안나푸르나 도전"

2일 발대식… 11일 출국



지난달 세계 제2위의 거봉 K2에 도전, 해발 7,400m 지점의 설벽을 주마링으로 오르고 있는 김홍빈 대장.

양손이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한 산악인 김홍빈(46·송원대산악회OB)씨가 이번에는 '인류 최초의 8,000m' 안나푸르나(8,091m)에 도전한다.

'희망만들기 2009 안나푸르나 원정대'(단장 임정용)는 내달 2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CMB광주방송 1층 세미나실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장애인들에게 좌절극복의 의지,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이번 원정은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후원한다.

원정대장을 맡은 김씨는 후배 산악인 1명과 함께 오는 11일 출국해 네팔 카트만두와 포카라를 거쳐 해발 4,130m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50일간의 일정으로 등반에 나선다.

김 대장은 "북동릉의 경우 눈사태 등 위험 요소가 많지만 히말라야 14좌 하나하나가 모두 꿈꿔온 원정이니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안전하게 등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카라코람 히말라야의 거봉 K2(8,611m)에 도전, 보틀넥(bottleneck) 윗 부분인 8,300m 지점까지 진출했다가 허리까지 빠지는 눈과 악기상 때문에 후퇴해야 했던 김 대장은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다. 행복한 등반이었다"고 술회했다.

세계 7대륙 최고봉에 이어 '8,000m급 14좌 완등'에 도전 중인 김씨는 지난 5월 1일 세계 제7위 봉인 다울라기리(8,167m) 정상을 밟아 가셔브룸Ⅱ와 시샤팡마 남벽(이상 2006년), 에베레스트(2007년), 마칼루(2008년)에 이어 히말라야 8,000m급 5개 봉을 등정했다.

/정후식기자 who@